

## 책에 대한 잘못된 생각

채호기

문학과학사 편집장

출판업에 몸을 담고부터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거, 책 나온 거 있으면 하나 주지”하는 말이다. 이런 청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난감해진다. 상대방은 대수롭잖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 청을 가끔 듣는 나로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궁색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각에는 책이란 그냥 공짜로 받을 수도 있고, 빌렸을 때 돌려주지 않아도 별로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건 좋게 이야기하면 책은 사고 파는 다른 상품과는 다른, 그러니까 여타 상품보다는 순수한 것으로 여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인 모양이다. 하지만 책도 상품이다. 물론 상품으로서의 속성만이 아닌 다른 속성을 함유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누가 나에게 그런 요청을 해올 때, 딱 잘라 거절하기는 아박해서

경우에 따라 나의 권한의 한도내에서 책을 그냥 줄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사서 보기를 권한다. (나도 가능하면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역시 책은 서점에 가서 골라 구입한 것이 애정있게 읽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책을 공짜로 받기를 원하는 욕구의 심층에는, 책을 대수롭잖게 생각하는 일면이 있는 것 같다. 가령, 우리가 보통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물건을, 별 생각없이 아무에게나 주거나 누가 가져가든 신경쓰지 않고 허술하게 방치해놓는 경우처럼 말이다. 그런 경우를 딱 꼬집어 물증을 대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화가 난다.

이번에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그랬다. 그 정책이 문학과 출판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텐데... 심사자료로 요구하는 책의 양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예를 들어, 우리 출판사에 해당되는 책이 모두 20종이었다. 종수당 5권씩을 요구했으니 그것만 해도 100권이다. 여기에, 출판사마다 종수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적게 잡아 500개 - 1989년 출현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출판사의 종수는 4,763개사이며, 그중 책을 간행한 출판사는 2,290개사였고, 89년 한해에 문학책의 종수는 초판된 책이 3,435종이었다 - 의 출판사에서 책을 제출한다면 그 숫자는 엄청나다), 어떤 발상에선지는 몰라도 심사에서 누락된 책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하니 그 많은 책을 자료라는 명목으로 무상으로 받겠다는 심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진정한 문학과 출판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좀더 면밀히 이쪽저쪽의 사정을 고려한 뒤에 사소한 문제에서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책은 얼마든지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그랬음인지, 국민의 세금을 행사하는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 입맛이 몹시 씁쓸하다.

##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9월 1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로 보내주시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69호(9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금성교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 문제1

상촌 신희, 월사 이정구, 계곡 장유, 태당 이식을 일컫는 말인 '상월계택'의 前四家와 함께 한국한문학사

상에는 '後四家'가 또한 일컬어진다. 다음에 든 사람들 가운데, 조선 정조연간의 걸출한 문장가를 지칭하는 후사가 속하지 않는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 ① 박제가
- ② 유득공
- ③ 이서구
- ④ 이덕무
- ⑤ 신 위

## 문제2

고려 무신집권시대의 문신으로 고려조 최고의 문장으로 일컬어지는 이규보의 다음 한시가 노래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넓고 큰 그늘이 장막을 이루었고 / 나무끼는 잎새는 구슬처럼 흩어졌어라 / 이 나무 심은 본뜻은 봉황을 보겠더니 / 쓸데없는 잡새들만 깃들였어라”

- ① 대나무
- ② 동나무
- ③ 소나무
- ④ 전나무

## 문제3

김천택과 더불어 시조가단의 쌍벽을 이루는 인물로 「해동가요」를

편찬했던 노가재 김수장의 다음 작품의 빈 칸에 맞는 구절을 보기에 서 골라 넣으십시오.

“일이삼월 ○○○ 좋고 사오육월 ○○○○ / 칠판구월은 ○○○○이 더 조하라 / 십 십일 이월에 ○○○○이 최다정이 조하라”

- ① 도리화
- ② 녹음방초
- ③ 황국단풍
- ④ 설중매향

## 제 65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5호(7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36통, 이중 정답자는 1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 문제 1

① 정철(‘장진주’란 원래 악부의 제명으로 흔히 飲酒遊樂을 노래하는

데, 이백의 「장진주」는 “당신은 아는가 / 황하의 물이 한번 쏟아져 내려와 / 바다에 이르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을”이란 유명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 문제2

② 권필(권필은 이안눌과 더불어 한국 한문학사상의 ‘二才’로 꼽힙니다.)

## 문제3

② 여름

## 당첨자

박승민(전남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지동부락)

백수현(서울 마포구 공덕1동 105-237)

윤은주(부산시 북구 화명동 1415-5)

전대홍(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현대 APT 105동 805호)

편조묘(경기도 성남시 운중동 501번지 정신문화연구원)

## 출판저널

통권 제67호/1990년 8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堯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鄭憲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全惠敬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依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제)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일사전식사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선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琴章泰	金光秀	金炳翼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愼鍾廈	安秉永	安輝潯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李康淑
李瑞蕓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銀	李重漢	李姬載	임희집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爽鍾
鄭雲暎	鄭晉錫	鄭鍾弘	曹大鉉
崔鍾庫	韓相賢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항)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